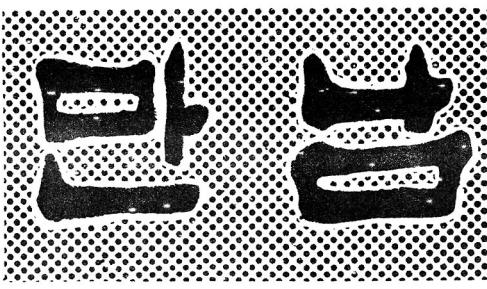


◆ 성 구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  
리의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을박질하여도 곤비  
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  
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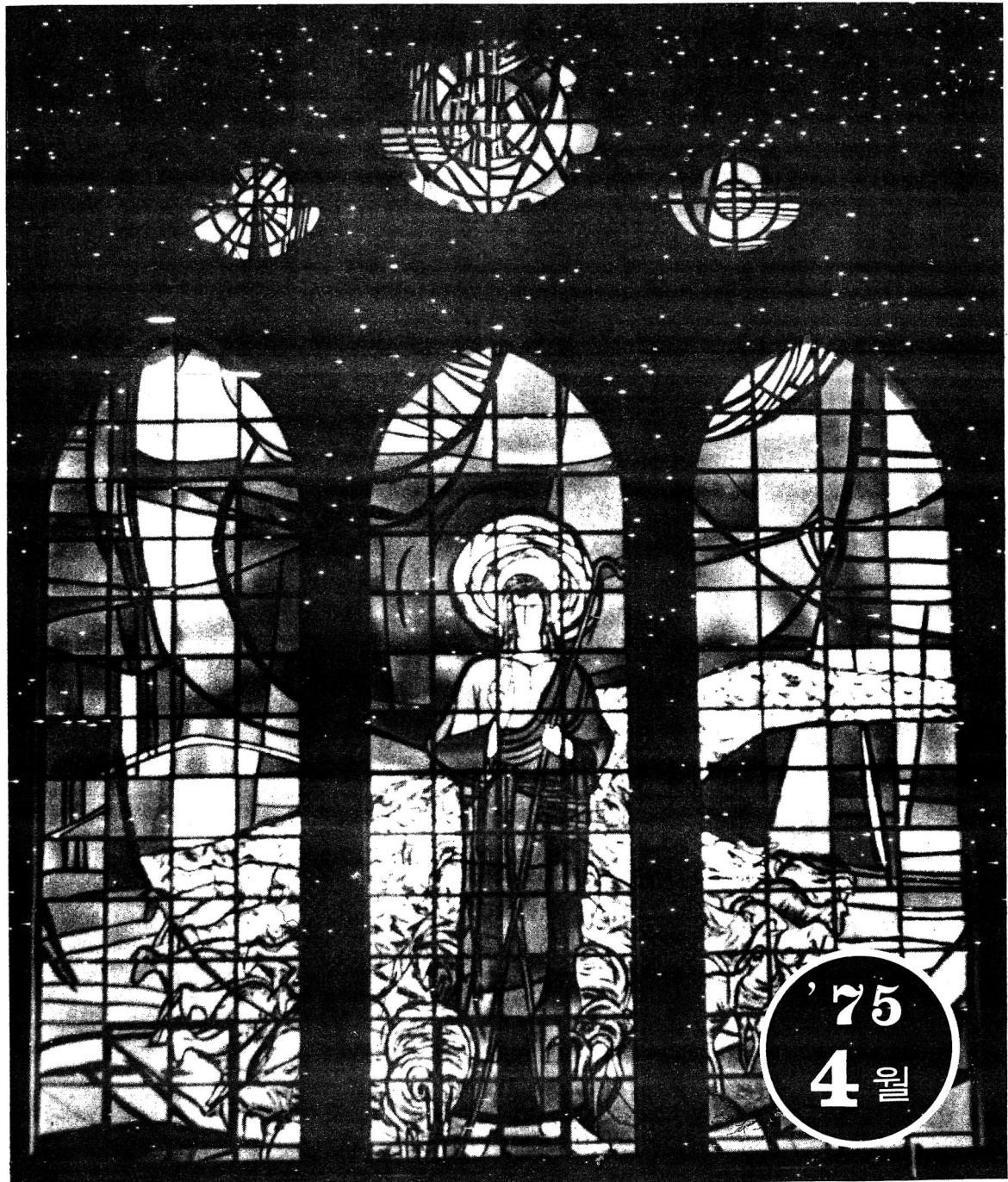
발행인 박 조 준

편집인 오 기 형

1975. 4. 27.

(제22호)

영락교회 평신도부 발행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모호를 맴았고 홍해 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나 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선령한 바위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의 거의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산산히 훑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교적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애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춰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처럼 우리도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이만 삼천명이나 죽어 넘어졌습니다. 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처럼 주를 시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를 시험하던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면 사람들은 멀망시키는 자에게서 멀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생긴 것은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은 세상 끝이 임박한 오해를 피하는 우리에게 훈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10장 1-11절)

빛내진 성서를 순례하면서 헬라의 아네과 거기서 조금 멀어져 있는 고린도에 들렀던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인 조건이 그 당시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으므로 경제적으로 꽤 융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사연히 여러 가지 인간의 타락한 생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짐지어 교회에 까지 말려 들어오는 세상의 물결을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 그들을 경고하였습니다. 지금의 고린도는 조그만 항구로 옛날 호화찬란했던 고린도의 거리는 물 기둥과 바닥 그리고 무성한 풀밭이 있는 곳으로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깊은 사양이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가 증거하여 주는 교훈이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역사로 동해 불에 죄악이 관상한 개인이나 국가하고 망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교적입니다. 사람이 사방인 것은 역사의 교훈과 경고를 거울삼아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새들은 덫을 놓고 거기에 먹이를 뿌려 놓으면 날아와서 먹이가 삽니다. 그 중에 삼아서 아니면 놀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한참 있으면 사지에서 멀었던 그 일을 나 잊어 버리고 또 먹이가 있는데 찾아 들어 또 삽하고 암입니다. 그래서 참새는 참새입니다. 사람은 참새는 아닙니다. 또 참새처럼 되어서도 안됩니다. 사람은 역사로의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세계의 정세나 특히 인도지나의 사태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는 크메르가 이미 끝이 났고 월남의 티우 대동령이 하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내려 앉았고 월남도 미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이상 그들의 앞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 본전에 착색유리 비치

본장 2쪽에 위치한 정면 창문에 스페인드 글라스(착색유리)가 설치 되었다.

정리숙 원활님과 김명순 집사님께서 기증한 이 스페인드 글라스는 양치는 폭자를 반 추상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스페인드 글라스의 특징은 자연 광선에서만 선명하게 그 색이 나타나며 야간 조명 아래서는 그 빛깔이 나타나지 않으며 실내에서 보아야 광선을 받아 원래의 색깔을 볼 수 있다.

서독의 듀셀도프에 있는 스페인드 글라스 제작 회사에서 직접 제작해 온 이 유리는 특수 화학 처리된 것으로 그 색이 영구적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성공회 외에 몇 곳에 비치되어 있는데 국내에 비치된 것으로는 그 규모가 최대의 규모라고 한다.

스네인드 글라스의 설치는 모자이크의 형식과 같아, 창문 하나에 유리를 끼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바뀌는 곳마다

같습니다. 어떤 평론가의 말이 티우 월남 전대통령이 눈물이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하면서 그가 하야성명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고 하였는데 그가 조금만 더 먼저 이 신리를 알았다면 월남이 오늘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사를 통해 경고 받고 교훈만을 풀을 알아야 합니다. 그어야 회양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불진풍조가 만연한 나라치고 오래 사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도지나의 사태가 그분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도 결코 예외 일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적이 말해서 국제적인 위치에서 점점 고립 상태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25년전 한국전쟁 때처럼 일단 유사시에 한국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정세는 자유 우방의 경우에 있어서 유엔도 미국도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이 절실히 느납니다. 정부당국도 이것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폐회들은 “남조선의 인민혁명이 일어나면 적극 지원하여 웃었던 조국을 되찾아야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문자그대로 불은 발 전동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절망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의 경고를 교훈 삼아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슬기를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4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때야 말로 한국의 기독교인이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건져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부정과 부패 암적인 존재인 불진풍조를 남의 일보듯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 국가의 주인된 국민의 의무를 감당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간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미 생명을 바친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데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야겠습니다. 뭉쳐야 삽니다. 다소의 의견의 차이는 잘 라질 것이 아니라 나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뭉쳐야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은 우리를 이간 불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뭉쳐야하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차해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사회통로개조를 위해서 헌신해야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기독교인은 이 땅에 살 자리가 없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뭉쳐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영락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온 교우가 봄나적인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교우는 하나로 뭉쳐야겠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겠습니다. 우선 나라를 건져야겠습니다.

남으로 접착을 시켜 그림을 연결 시킨다. 따라서 본당에 비치된 스페인드 글라스는 몇 백장의 유리를 연결 시켜서 된 그림이다.

제작은 독일에서 작년에 6개월 동안 걸쳐서 완료되어 금년 2월 초에 한국에 도착 되었는데 그 중 8개의 유리가 운반 도중에 파손되어 독일에 다시 공수하여 재제작 되어서 4월 16일에야 공사의 완료를 보았다.

이 스페인드 글라스를 기증해주신 정리숙 원활님과 김명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 통일교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

공동서신들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많은 저(敵)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을 볼 수 있다. 비단 적그리스도는 초대 교회뿐나라 또는 다른 어느 특정한 시기에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 바요즈음에 와서도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변천할수록 그 적그리스도의 전술도 또한 다양해져서 언뜻 듣기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또는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많은 성도들을坑할 수 있다. 임으로 혼서시키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와같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계하시며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 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백 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마13: 21-23)고 말씀하시었다.

지난 14일부터 3일간 장충체육관에서는 소위 '희망의 날 대향연' 운운하는 통일교의 집회가 있었다. 이들 통일교는 명확히 예수님께서 미리 일어 주신 거짓 그리스도인바, 전국적 규모로 교회 각처에서 이들의 이단성을 밝힌 것은 국히 당연한 처사였다. 우리 교회에서도 본지(만남) 호외를 발행하여 서울 시내 각 교회와 기독교계통 학교로 배부하여 그 정체를 밝혔으며, 또한 본교회 여전도회에서는 본지 호외를 추가인쇄하여 전국의 교회로 배부하기도 하였다.

통일교는 애써 스스로를 “통일교회”(?)로 부르며 기독교인양 가장하려 들지만 이는 언어도단이다. 지난 4월 16일 수요기도회 때 박 조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 “통일교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다”고 재삼 밝힌 바 있지만, 차라리 통일교는 문 선명敎이며 이업적 결단과 기독교는 아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4일자 시내 각 일간지의 광고를 통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섭리기운에서' 생긴 '새 시대의 이념'이라고 해놓은 걸릴레오를 들여다며 위장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분해하여 제멋대로 끼어 맞추고 왜곡시키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으며, '20세기의 정신혁명운동' 운운 하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무두하게도 들여다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반의 구원밖에 성취 못했다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불인정한 것이 어찌 개혁일 수가 있을가? (오.히려 그들

## ○ 전도부 소식 ○

## ■ 전도 요원의 전도 상황

3월 29일 전도 요원 제 3기생 45명은  
임진각에 가서 관광객 350명에게 전도하  
였으며 북한에 허물어진 재단을 손해 재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끌릴 수 있는 날  
이 오기를 기원하여 이 날을 기점으로 하  
여 매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창경원  
창덕궁 등을 찾아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한편 4월 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여전도회 전도부 주최로 11명이 남산에  
올라가 노방 전도를 하기도 하였다. 또  
한 전도 요원 2기생들은 4월 8일 15명이  
대중 전도를 하였고 5월에는 쇠전방 부대  
를 방문하여 국토 방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리라고 한다.

한편 전도 요원 제1기 총회가 4월 9일에 있었으며 총회 후 망원동에 가서 노방 및 축호 전도를 실시하였다. 또 4월

스스로의 탁락이지… !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당히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진노로 갚지 마시기를 기도한다'며 뜻 사람들을 기만하려 했지만, 본 교회 대학생들을 교회 정문에서 본지 호외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현장에서 기동대(?)를 승용차로 파견하여서 원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완력으로 이를 뺏어 가려고 했으며, 이와 같은 강탈 행위를 4차례에 걸쳐 자행하여 본교회 대학생들의 옷을 뗇고 책상을 허수드려 놓는 등의 행위를 자행함으로 스스로의 마작을 드러내놓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세계 각처에서 포교활동을 하여 그들로 한국을 신앙의 조국으로 삼게 함으로 마치 국위선양을 한 양 과장하지만, 이들의 이와같은 광고가 나온지 불과 몇 일 안된 4월18일자 해외토론판에는 “세너시켜 재산포기 강요당해” **英議員**, 통일교 실태조사요구”란 제목하에 통일교가 우리나라의 얼굴에 멱칠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우리 교우들은 결코 이런 거짓 그리스도의 폐임에 혼후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또한 사단은 빈번히 영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혼후시키려 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할 것이며”(요1서 4:1) 또한 한계에 없이 이런 저런 친구들에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암으로”(요1서 2:24) 적 그리스도에게 혼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13일 남전도회는 월례회를 마친 후 전도부원 전원이 유신 고속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서울을 중심으로한 전국 각지에서 결심 카드가 계속 날아오고 있어 현재 60여통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 국종심 발류 현황

3월 25일 문태식 장로 외 남녀 전도회  
임원 5명이 국방부 군종실을 방문하여 전  
군 신자화 운동 현황을 살펴 보았다. 본  
교회 자제 군목이 신 대령 문은식 목사  
는 60만 대군을 신자화하는 데 영락교회  
가 앞장서고 있음을 감사드린다고 하여  
60만 전국에게 성경 토시 강좌를 실시하

여 신자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에 민간 교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한다.  
현재 영락 교회와 결연된 군목은 13명으로서 전도부 10명, 여전도회 2명, 남전도회 1명이라 한다.

### ■전발 부대 발문■

3월 30일에 여전도회는 최전방 977부 대를 방문하여 교회당 건축 현금으로 10

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전도부가 준비한 달걀 400개를 전달하여 많은 위로를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천전도회도 4월 13일 월례회의 시축 석현금을 하여 10만원을 준비하여 전방 군인 교회건축을 돕기로 하였다.

■ 안내원 위로회 ■

3월 22일 12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선교관 하층에서 삼화 운수 소속 안내양 40여명의 위로회가 여전도회 사회부 주최로 열렸다

전도부장 문태식 장로와 여전도회장 주선애 권사 외에 여전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 ■인천 외항 선교 계획■

3월 27일 전도부장 문태식 장로의 3명이 현지 시찰을 한 후 4월 여 전도회 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하여 외항 선교 실시를 결의하였다.

외향 선교의 특색은 인천 항구에 정박하는 외향 선원들에게 선교하여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물론 적성국가까지 성경을 보내 전도하는 것이다. (5)

『洗腦시켜 財 재 포기 강요당해』

# 대학생회 부활절 신앙 강좌

- 천 오백여 대학생 모여 성료 -



■ 신앙 강좌 중 한 장면 ■

지난 3월 27일과 28일 대학생회 주최 부활절 행사로서 「부활과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장로교 신학대학의 맹 용길 박사와 연세대학교의 이 규호 교수, 김 찬국 교수, 김 동길 교수의 의미 깊은 부활제 특별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은 봉사관 하층에서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천 오백 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에는 타교회 대학생과 평신도들도 있었다.

첫날 맹 용길 박사는 부활과 기독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정점으로 이루어 있고 죽음의 깊은 배임으로 부터의 해방임과 동시에 죽음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섬기라는 책임을 요청하는 것

이라 했다. 또한 기독교의 책임은 크리스챤의 자유가 섭기는 자유임을 보여주고 기독교인은 화해의 직책을 수행하여 세상을 변형시켜 나아가서 봉사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규호 박사는 부활과 사회정의라는 주제로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약속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보증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냉정한 이성을 통해서 참여해야 하며 그 사고 방식은 비약과 실존적인 결단이 중요한 문제라 하였다.

둘째날 김 찬국 교수는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는데 부활의 의미는 진리의 부활과 정의의 부활이라면서 역사의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탈출구였다고 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부활 그 자체가 큰 약속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김 동길 교수는 그날 강연에 온 무신론자를 위해 부활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 교수는 자신이 한국 기독교인임을 자부하면서 인간의 가치는 예수의 부활에 있고, 이 부활절을 계기로 기독교인에게 성서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가지면서 부활의 희망을 알고 민족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자세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 대학생회 4. 19 탑 찾아 기념예배

대학생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에 4. 19 15주년을 맞아 30여 명의 회원이 4. 19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수유리에 위치한 4. 19 기념탑에서 기념 예배를 거졌다. 가

예배 중 그 당시의 부정 부패와 사회악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고 고귀한 퍼를 헤어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들을 회상하며 어두운 현실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짐하는 회원의 기원문 낭독이 있었으며 이사야서를 통한 김서년 전도사의 메시지가 있었다.

미리 준비한 흰 카네이션을 회원 한 사람이 한 송이씩 헌화하였으며 대표로 회장과 부회장이 분향을 하였다.

예배 후 회원들은 기념탑 뒤에 위치한 4. 19 학생 묘지와 봉안소를 찾았다.

## ❖ 보린원 소식 ❖

보린원에서는 도움을 주시는 많은 교우분들 중에서 특히 관심을 보여 주시는 두 분의 수고에 감사한다고 한다.

그 두 분이란 후암동에 위치한 조 소아과 원장 님 이신 조 경숙씨와 보린원 후원 회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최춘식 사장님이시다.

조 경숙씨는 1974년 11월 6일 자원해서 보린원 지정 병원으로 보린원생 전원의 건강 진단 카드 작성과 영양제 등 약품을 보내 주시며 지난 겨울에는 왕진 치 둘르셨다가 침구를 보시고는 일부 개선을 위해 쟁점 10만 원을 성탄절에 보내 주셨고 부활절에도 금일봉을 보내 주셨다. 특히 장녀인 김 보영양은 고등부 반주자로 수고하면서 보린원 합창단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

최 춘식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불우한 원생들이 진학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76년도 졸업 예정자 중 중실 고교 3학년 홍 성준군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이미 일학기 분납금 쟁점 10만 원을 보내 주셨다. 보린원에는 최 사장님과 같은 독지가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는 중실고교 3년 박 호준(신학대학 지망), 보성여고 3년 김 혜경(사범대학 지망)의 두 학생이 있다. 이들에게도 배움의 길이 열린다면 큰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리라고 믿는다고 하며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한다.

그 외에 김 창식목사와 이 영우양이 약혼 기념으로 십자가상을 보내주셨다.

## 교역자 동정

### ■ 한 경직 원로목사 귀국

지난 1월 13일에 선명회 창립 25주년 식전에 참석하기 위해 노미 하셨다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전도 세미나에 장사로 수고하시던 중 지난 4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세미나를 마치시고 귀국 하셨다.

### ■ 박 준운 당회장 목사 대전에

박 준운 목사님은 지난 4월 14일 저녁에 대전에서 열렸던 평신도회 전국 연합회 순회예배를 인도하시려 대전에 다녀 오셨다.

### ■ 이 성재 목사 싱가폴에

이 성재 목사님은 한 경직 목사님께서 강사로 참석하고 계신 국제 전도 세미나에 수강하기 위하여 6주 일 예정으로 싱가폴에 가셨다.



김 창식 목사

### ■ 김 창식 목사 부목사로 부임

본적이 평안북도이신 김 목사님은 대광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숭진 대학을 마치신 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오셨다.

본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영락 중 상업 고등학교 교목으로 근무하셨고 새문안 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로 시무 중 부임하였다.

가족으로는 사모님과 아들 삼형제가 있다.

# 부활절 맞아 현혈 캠페인

- 청년협의회 주관으로 -



현혈하는 광경

지난 3월 16일(주일)과 3월 21일(수난일)의 이를 동안 부활 주일을 맞아 주님의 피 흘리실에 보답하기 위한 현혈이 청년 협의회 주최로 있었다.

서울 천심자 혈액원에서 나와서 한 채혈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코자 하였으나(특히 노년층) 대부분 신체 검사에서 탈락되어 참가한 인원수는 99명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혈액의 90%는 매혈이고 10% 가량이 현혈이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쓰이는 혈액의 거의 다가 현혈이며 그들은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현혈을 한다고 한다. 현혈은 우리 몸의 혈액의 순화에 무척 좋으며 우리가 보통하는 현혈의 양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죽진시킨다고 한다.

현혈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현혈 연령은 만 16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이며 남자는 50kg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45kg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여자는 생리 후 일주일이 지나야만 할 수 있다. 그외에 전염병을 앓았거나 혈액으로 전염될 수 있는 병을 지닌 사람과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 또 수술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및 헤모글로빈 함유량이 미달인 사람은 현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주의사항을 명기하여 다음 현혈의 기회에는 더욱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란다.

## 성서 히브리어 초급반 개강



성서 원어부는 4월 3일 오후 7시에 이 성재 목사님을 모시고 25명의 반원이 모인 가운데 성서 히브리어 초급반 개강 예배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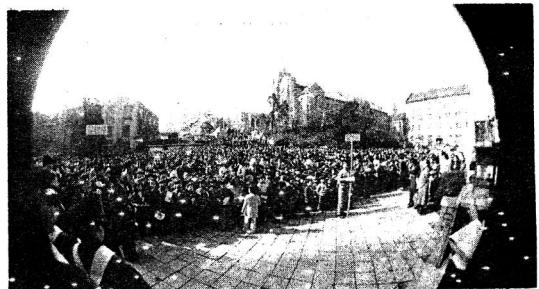
성서 히브리어 초급반은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 공부하고 있으며 강사로는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이신 배재민 목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신다.

## 권찰 강좌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선교관에서 권찰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택진 목사의 강좌가 있었다.

임 목사님의 “지혜있고 신실한 청지기”란 주제의 강좌에 많은 응해를 받았다고 한다.

## ○ 교육부 부활주일 연합행사 ○



교육부 연합예배 광경

교육부는 3월 30일 오전 8시 30분 연합 행사를 다. 교육부 산하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전체가 참석한 이 행사는 1부에 각 부 예배를 본 후 2부에는 합동 예배로, 교육부 담당 목사이신 권용평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3부에는 반 담임 교사들과 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배정된 전도 구역에 축호 전도를 나갔다.

행사 준비 위원장 장윤철 교육부 부장님의 인도 아래 진행된 이날 부별 연합 예배는 영아부와 유치부가 유치원에서, 유년부는 봉사관 하층, 초등부는 교육관 4층, 중등부는 선교관, 고등부는 본당에서 각자 예배를 드린 후 친송 133장을 부르며 교회 교정에 전체 집결을 하였다. 이어서 권용평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부활절 메시지 낭독을 학생과 교사 전원이 복창을 한 후 박조준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었다.

이날 각부의 축호 전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유년부: 인현동, 저동, 초동, 오장동, 예관동, 충두로3, 4, 5가, 광화동

초등부: 남산동, 예장동, 회현동, 필동, 주자동, 남학동, 목정동, 장충동, 쌍림동

중등부: 명동, 충무로1, 2가, 소공동, 북창동, 다동, 무교동, 남장동, 양동, 도동, 서울역일대

고등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교동, 입정동, 산림동, 주교동, 익지동, 장사동, 판수동, 판월동, 서린동, 청진동, 수송동, 중학동, 판문동, 견지동, 낙원동, 익선동, 문리동, 안국동, 가회동, 계동, 전서동, 삼청동.

전도지는 5종류로 5만매를 준비하여 다른 교파가 부착되어 있는 집에는 전도지를 넣지 않고 그외의 집에는 인사를 공손히 드린 후 영락교회 학생임을 알리면서 교회 출석을 권하였다. 그외에 거리의 학생들에게도 전도지를 전달하였다.



축호 전도하는 모습

## 고등부 신앙강좌

4월 20일 고등부는 김충남 목사님(현 신일고교 교목)을 모시고 신앙과 학문이라는 주제의 강좌를 가졌다.

2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이 강좌에서 김목사님은 신앙과 학문의 관계는, 신앙은 학문의 자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 묘사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신앙 없는 학문과 학문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으며 이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 공부인가 교회의 생활인가 하는 새로운 조화에 대하여 진지한 질문과 응답으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을 모색하였다.

## 농아부 소식

- |     |     |   |
|-----|-----|---|
| 3 월 | 1 일 | 교사 1일 기도회를 효자산 기도원에서 개최하여 은혜를 받음.   |
|     | 2 일 | 정기제직회, 교사회, 명신도회임원회.  |
|     | 9 일 |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학년별 자치회의를 가짐.   |
|     | 16일 | 교회학교 초등반사를 중심으로 교재 연구회를 가짐.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각부별 토의회를 가짐.<br>박윤삼 목사님의 회갑을 맞아 축하 예배를 드림.                                      |
|     | 23일 | 교사회의<br>성례문답  |
|     | 30일 | 부활 주일을 맞아 축하 행사로 초등부 주최로 성극을 발표함.<br>세례: 7 명, 학습: 14명, 유아세례: 2 명  |
| 4 월 | 1 일 | 농아부가 교회로 승격.  |
|     | 5 일 | 중·고등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영락 기도원에서 개최.   |
|     | 15일 | 춘계 대심방 시작 (120세대 예정)  |
|     | 20일 | 농아교회 운영위원회 모임.  |
|     | 27일 |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과 직장 관계로 주일 출석이 어려운 교우들을 위한 월간지 "에바다"를 발간<br>매주 수요일 초등부 그산 학교<br>매주 토요일 학생회에서 성경 공부와 친교의 모임인 코이노니아회를 시작함. |

| 부 서    | 계    |
|--------|------|
| 주일 친회  | 317명 |
| 주일 친회  | 313명 |
| 주간 학교  | 15명  |
| 주간 학교  | 21명  |
| 코이노니 회 | 17명  |

식별부 수술

십방부에서는 지난 2월 중에 전찰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재료로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십방 준비 회의에서 설문을 배부하여 이  
에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체계하였다.

## 설문

### 응문자수 %

- |                                 |                                 |                  |                    |
|---------------------------------|---------------------------------|------------------|--------------------|
| 2월 중에 실시한 훈련을 받은 후              |                                 |                  |                    |
| ⑦ 나의 직책에 대한 책임을                 | (1) 절실히 느꼈다.<br>(2) 별로 느낀 바 없다  | 610<br>41        | 91%<br>6%          |
| ⑧ 우리 구역은 주간 심방을                 | (1) 꼭 실시한다<br>(2) 아직 못한다        | 509<br>137       | 76%<br>20%         |
| ⑨ 이사가는 세대에 대한 주소<br>변경보고를 내는 일에 | (1) 적극 협력한다<br>(2) 적극성이 없다      | 523<br>94        | 78%<br>14%         |
| 2. 앞으로 훈련에 대하여                  |                                 |                  |                    |
| ⑩ 훈련은                           | (1) 매우 좋다<br>(2) 괜찮다<br>(3) 나쁘다 | 464<br>192<br>12 | 69%<br>27%<br>107% |
| ⑪ 훈련은 앞으로 계속한다                  | (1) 가<br>(2) 부                  | 597<br>47        | 89%<br>7%          |
| ⑫ 훈련 장소는 어느 편이 좋은가              | (1) 가정<br>(2) 교회                | 29<br>626        | 4%<br>93%          |
| ⑬ 장소는 어느 편이 좋은가                 | (1) 교구 별<br>(2) 전체              | 336<br>305       | 50%<br>45%         |

## 교육부 소식

- |          |   |  |
|----------|---|--|
| 3월 평균 출석 | 2,673명  | 현금 1,268,449(부활현금 포함)                    |
| 영 아 부    | 4월 일  | 성경암송, 생일축하, 신입생환영.                       |
| 유 치 부    | 4월 6일   | 신입생환영, 생일축하.                             |
| 유 년 부    | 4월 6일   | 교사 월례회, 교사 사진촬영.                         |
|          | 4월 13일  | 교사 학년회, 교사월보 "비들레웹" 2호 발행.               |
|          | 4월 20일  | 활동.                                      |
|          | 4월 27일  |  |
| 초 등 부    | 4월 6일   | 임사회, 분과위원장 연설회의.                         |
|          | 13일   | 전체교사회의, 어린이 대의원 임원회.                     |
|          | 20일   | 신입생 환영회. 4,5,6학년 여자 야외예배, 기도원에서.         |
|          | 27일   | 교사월례회                                    |
| 중 등 부    | 4월 6일   | 각분과 위원회 월례회. 봄 씨앗 모으기, 교사 대심방, 학원 전도대조직. |
|          | 13일   | 학생회 각분과 월례회.                             |
|          | 19일   | 학원복음화 전도대 (보성여중전도)                       |
|          | 20일   | 2학년 주관예배, 저녁 - "기독교 이단 종파의 실재"           |
|          | 27일   | 학년교사회 및 반장연설회의                           |
| 고 등 부    | 6일  | 실행 위원회                                   |
|          | 13일   | 전체교사회의, 임원연수회, 영화시사회 "영락 30년사"           |
|          |   | 차남선 권사님 : 캐비넷 기증                         |
|          |   | 조신근 권사님 : 책장기증                           |
|          | 20일   | 신앙강좌, "신앙과 학문"                           |
|          |   | 강사 : 김중남 목사                              |
|          | 27일   | 1,3학년 야외예배, 장소 : 영락기도원                   |
| 주 간 학 교  | 5일  | 교사 기도회 (11명 참석)                          |
|          | 27일   | 전체 기념촬영.                                 |
| 교사양성부    | 94명의 학생중 74명의 교사후보생들이 "성서개설" "기독교 교육원리"를 공부함.                 |  |
| 어머니교실    | 박종무 장로, 주선에 권사님을 모시고 39명의 어머니들께서 "공중보건, 모자보건" "새사람의 원리"를 공부함. |  |
| 연 합 사 업  | 4월 7일 교육부 지도자회의   |  |
|          | 14일 교육부 지도자회의.  |  |
|          | 20일 교사 조사 실시.   |  |
|          | 21일 교육부 지도자회의.  |  |
|          | 27일 교육부 지도자회의. 교육부 브리핑차트 완료.                                  |  |

### ▣ 훈련시간수

(1) 권찰 기도회등 모임 시간을 이용 479 74%  
(2) 따로 모인다 138 20%

권찰 이동 현황 1975년 3월 31일 부

|    |     | 해일 |    |   |   | 보일 |   |    |  |
|----|-----|----|----|---|---|----|---|----|--|
| 교구 | 구   | 구역 | 직위 | 이 | 률 | 직위 | 이 | 률  |  |
| 1  | 성동  | 3  | 권  | 찰 | 정 | 인  | 숙 | 찰  |  |
| 1  | 성동  | 8  | 권  | 찰 | 장 | 상  | 우 | 찰  |  |
| 2  | 영동포 | 5  |    |   |   |    |   | 찰  |  |
| 2  | 영동포 | 16 | 권  | 찰 | 채 | 혜  | 명 | 권  |  |
| 3  | 용산  | 1  | 구역 | 장 | 한 | 혜  | 주 | 구역 |  |
| 3  | 용산  | 8  | 권  | 찰 | 김 | 기  | 온 | 장  |  |
| 4  | 서대문 | 9  | 구역 | 장 | 방 | 지  | 언 | 찰  |  |
| 4  | 서대문 | 25 | 권  | 찰 | 임 | 봉  | 원 | 구역 |  |
| 4  | 서대문 | 30 | 구역 | 장 | 김 | 희  | 태 | 장  |  |



# 성경통신학교

- 자격:** 본 교회 등록된 교인이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아무비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신 때부터 빠짐없이 답안지를 제출하십시오.
- 방법:**
  - 답안지에 기록사항과 답을 똑똑히 기록 하십시오.
  - 답안지를 잘라서 매 주일 본전 올라가는 층계 옆의 통신학교 함에 넣어 주세요.
  - 접수된 답안지를 채점하여 본인에게 보내드립니다.
  - 지난회 분의 문제지는 평신도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졸업:**
  - 신·구약별로 나누어 빠짐없이 좋은 성적으로 마치시면 졸업증서를 드립니다.
  - 졸업식은 저녁예배시에 성대히 가집니다.

## 사도행전 연구

- 본 서의 기자는 1장 1,2절로 미루어 보아 ( )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 )일만에 승천했습니다.
- 가룟유다 대신 사도로 임명된 자는 ( )입니다.
- 2장 23절에 나오는 “법없는 사람”을 3장 11~17절에서 찾아보면 ( )사람들과 ( ), 또 유대의 ( )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 2장에서 4장 사이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세번 나옵니다. 각 장절을 쓰십시오.  
 ① ( )장 ( )절에서 ( )절까지  
 ② ( )장 ( )절에서 ( )절까지  
 ③ ( )장 ( )절에서 ( )절까지
-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사람은 ( )와 ( )입니다.
-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은 ( )와 ( )들이 ( )에게 한 말입니다.

- 처음 택한 7집사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 ), ( ), 디몬, 바메나, ( )입니다.
- 우리 기독교회사상 첫 순교자는 ( )입니다.
-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에서 그는 ( )을 가르키며, 사마리아 성에 전도한 사람은 ( )이며,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던 사람은 ( )고, 빌립에게 세례받은 내시의 나라이름은 ( )며 또 그 여왕이름은 ( )입니다.
-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추천한 사람은 ( )입니다.
-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세움받은 두 사람은 ( )와 ( )입니다.
- 우리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으로 일컬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 루스드라의 무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 )라고하고 바울은 말을 잘하는 자임으로 ( )라고 하였습니다.
- 1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열린 공의회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공의회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주장 때문에 열린 것으로서 ( ), 바나바, 바울, ( )의 발언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은 곳은 ( )입니다.
- 바울은 테살로니카에서 ( )의 집에 유하였고 고린도에서는 ( )와 ( )의 집에서 우거하였고 다음에는 ( )라하는 사람의 집에 우거하였습니다.
-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모든 사람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 )이나 되었습니다.
- 창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진 드로아 청년의 이름은 ( )입니다.
- 바울은 길리기아의 ( )에서 출생하였으며 (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 )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 )고 함으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 바울이 로마로 갈때 탄 배이름은 ( )이고 섬가운데로서 일어난 광풍의 이름은 ( )이며 배에 탄 사람은 모두 ( )명이고 바울일행이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이름은 ( )였습니다.

| 구           | 제     | 구역    | 님·녀 |
|-------------|-------|-------|-----|
| ① ( )       | ( )   | ( )   | ( ) |
| ② ( )       | 일)    | ⑧ ( ) | ( ) |
| ③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⑨ ( ) | ( ) |
| ( )         | ( )   | ⑩ ( ) | ( ) |
| ⑤ ( 장 절~ 절) | ( )   | ( )   | ( ) |
| ( 장 절~ 절)   | ( )   | ( )   | ( ) |
| ( 장 절~ 절)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         | ⑪ ( ) | ( )   | ( ) |
| ⑦ ( )       | ( )   | ⑫ ( ) | ( ) |
| ( )         | ( )   | ( )   | ( ) |

## 답 사도행전 연구 안 연구지

| 성명   | (나이) | 세     |
|--|------|-------|
| 주소   |      |       |
| ⑬ ( )  | ( )  | ⑳ ( ) |
| ⑭ ( )  | ( )  | ( )   |
| ( )  | ( )  | ㉑ ( ) |
| ⑮ ( )  | ( )  | ( )   |
| ( )  | ( )  | ㉒ ( ) |
| ⑯ ( )  | ( )  | ( )   |
| 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⑯ ( )  | ( )  | ( )   |
| ⑰ ( )  | ( )  | ( )   |
| ( )  | ( )  | ( )   |
| ※답안지만 잘라서 본<br>전 올라가는 층계 옆<br>의 통신학교함에 넣<br>어 주세요. |      |       |
| ⑯ ( )  | ( )  | ( )   |
| ⑰ ( )  | ( )  | ( )   |